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한국 체조 대들보 양학선이 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노스그리니치아레나에서 열린 2012하계올림픽 남자 도마에 출전, 최고난도의 기술을 펼치기 위해 공중 높이 솟구치고 있다. 양학선은 이날 2위를 차지한 러시아의 데니스 아블랴진을 여유있는 점수차로 따돌리고 한국 체조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루었다. /연합뉴스

광주의 아들 '도마 神' 양학선

159㎝ 작은 키로 세상 가장 높이 날다

광천초 3학년 때 놀이 삼아 체조 입문

광주체중·고서 '스카라 트리플' 마스터

'광주의 아들' 양학선이 가난을 딛고 세계 무대에서 활짝 날았다.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양학선(20·한체대)은 타고난 '도마의 신'이었다.

태몽부터 남달랐다.

어머니 기숙향씨는 꿈에서 붕어 한 마리를 보았다. 도랑으로 흘러 들어온 붕어는 큰 강으로 흘러들어가 커다란 비단잉어로 변했고, 물 위로 튀어 오르며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다.

그렇게 태어난 양학선은 올림픽이라는 영광의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양학선' 기술로 공중을 날며 가장 큰 갈채를 받았다.

양학선이 체조에 입문한 것은 광천초 3학년 때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부모님이 돈을 벌기 위해 늘 집을 비우셨고 양학선은 체조를 하던 형을 따라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자연스럽게 양학선도 체조 선수의 길에 접어들었다.

대한체조협회에 등록된 양학선의 키는 159㎝(53㎏)이다. 유난히 작은 키, 작은 체구지만 그래서 양학선의 금메달이 가능했다. 양학선의 좁은 어깨는 회전반경을 작게 해줘 공중에서의 회전력을 높여준다.

무엇보다 신체의 한계를 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도마의 신'을 만들었다.

광주체중에서 처음 양학선을 만난 오상봉 광주체고 감독은 '작은 선수'에게 도마를 권유했다. 작은 신체를 활용해 더 높이 뛰고 더 많이 회전할 수 있도록 10㎏ 짜리 바벨을 허리에 묶고 25m 거리를 전력질주 하도록 하는 등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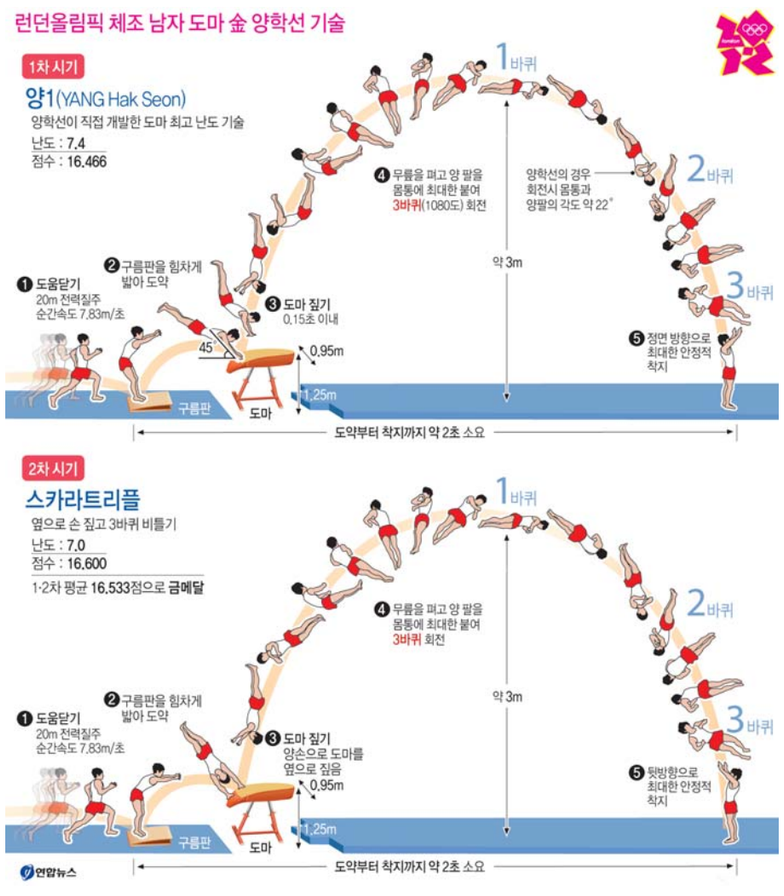
부단한 노력으로 양학선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구름판을 딛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세 바퀴를 돈다. 체육과학연구원의 분석 결과 양학선의 도움닫기 속도는 초속 7.83m로 평균 초속 6m인 일반 선수보다 훨씬 빠르다.

광주체중 3학년이던 2007년 전국종별대회 3관왕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낸 양학선은 도마에서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훌쩍 자랐다. 올림픽 금메달을 확정지은 난도 7.0의 '스카라 트리플'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완벽하게 마스터한 기술이다.

첫 시니어 대회였던 2010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도마 4위에 올랐던 양학선은 이어 열린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빛 착지를 하며 병역 신체검사를 받기도 전에 병역 혜택을 받는 진기록도 남겼다.

차근차근 올림픽을 위해 전진한 '강심장' 양학선은 자신의 첫 올림픽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다.

마지막 주자로 나서면서 라이벌들의 점수에 따라 안전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내심 자신의 장기인 '양학선'을 선보이기 바랬고, 세계인들에게 5초간의 극적인 연기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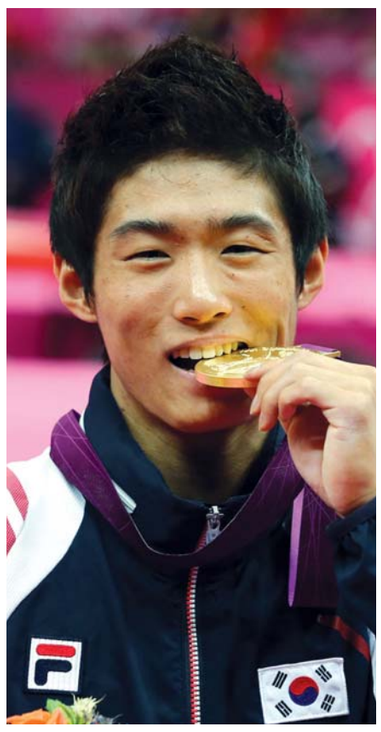


가난과 체격 조건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온 청년 양학선은 시상대에서 환한 미소를 보여줬다.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올림픽을 끝낸 양학선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도마는 내게 기회이자 희망"

양학선 금메달 인터뷰



양학선이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깨물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체조에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은 안긴 양학선(20·한체대)은 6일(현지시각)메달 수여식이 끝난 뒤 공동취재구역에 금메달을 양손으로 붙잡은 채 등장했다.

그는 "런던에 와서 연습이 잘 안돼 고민이 많았는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딴 금메달이라 어떤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절대 바꾸고 싶지 않다"며 반짝반짝 빛나는 금메달을 소중하게 어루만졌다.

양학선은 최고 난도의 기술인 '양학선'(난도 7.4점)과 '스카라 트리플'(난도 7.0점)을 잇달아 펼쳐 16.53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고 당당하게 금메달을 획득했다. 2위 러시아의 데니스 아블랴진(16.399점)과의 격차는 0.134점이 났다.

양학선은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면서 "도마는 내게 체조 선수로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한 종목"이라고 세계를 제패한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시기에서 완벽하게 착지하면서 금메달을 예감했다"며 "한국에서는 체조가 비인기 종목이지만 나를 통해 후배나 유망주들이 꿈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해 '세대에 영감을 주는' 금메달이 되기를 바랐다.

지난달 16일 런던에 와 적응 훈련을 치른 양학선은 연습 중 착지가 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심지어 "메달을 따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갔더니 숙소에서 선배들이 나를 무시하는 꿈을 꿨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기억난다"며 적지 않게 속앓이를 했다고 말했다.

양학선은 이날 결선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으나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좋은 꿈을 꾸셨다고 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금메달을 일군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결선에서 마지막에 출전했기 때문에 앞서 연기에 나선 경쟁자의 점수가 16.266점 이하면 난도 7.0점짜리 '여 2'를 쓰고, 그 이상이면 양학선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소개했다.

실제 다섯 번째로 연기한 아블랴진이 16.399점을 받자 양학선은 뒤도 보지 않고 '양학선'을 빼들었다.

양학선은 "6번 선수의 연기부터 봤다. 옆에서 몸풀 때 속으로 아블랴진이 잘해야 나도 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마음먹었다"며 강한 승부욕을 내보였다.

그는 "1차 시기에서 두 발을 움직이는 바람에 '큰일났다'고 생각했으나 두 번째 연기에서는 완벽하게 착지해 실수를 만회했다. 내 몸이 깃털처럼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면서 올림픽 정복으로 '도마의 신'이 된 기분을 전했다. /연합뉴스

삼수만에 금 캔 조성동 감독

유옥렬·여홍철 이어 양학선까지 20년간 국가대표 지도

한국 체조가 도마로 올림픽 금메달에 근접했던 때가 두 번 있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출전한 유옥렬(39·현 대표팀 코치)과 여홍철(41·경희대 교수)이 체조인들의 염원을 현실로 바꿔 줄 인물이었다.

두 선수는 당대 최고의 도마 달인이었다. 유옥렬은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 도마에서 우승하며 사상 첫 한국인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여홍철은 기술에서 세계를 압도했다. 1993년 옆으로 굴러 구름판을 밟은 뒤 두 바퀴 반을 돌고 착지하는 '여 1'이라는 기술을 선보였고, 이듬해에는 구름판을 정면으로 밟은 뒤 공중에서만 900도를 도는 '여 2'라는 신기술로 발전시켰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정작 올림픽에서는 태극기를 시상대 꼭대기에 올리지 못했다.

유옥렬은 올림픽에서 비장의 신무기를 선보인 비탈리 셰르보(독립국가연합)에게 밀려 동메달에 머물렀다.

여홍철은 결승에서 하체가 무너지면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 맺힌 순간 두 선수 옆에는 조성동(65) 현 대표팀 총감독이 있었다.

40대 젊은 지도자로 대표팀에서 두 선수를 지도한 그는 두 번 모두 금메달을 확신했으나 불운에 고개를 저었다. 이후 서울체고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던 조 감독은 2010년 베테랑을 필요로 했던 대한체조협회의 부름을 받고 '구원투수'로 다시 태릉선수촌에 들어왔다.

협회가 금메달 전략 종목을 평행봉에서 도마로 선회하면서 조 감독은 도마 유망주를 발굴했고, 광주체고 2학년이던 양학선을 그해 말 성인 대표팀에 발탁하고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육성했다.

고교 시절부터 도마에서 두각을 나타낸 양학선은 '너무 일찍 기량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조 감독의 전략에 따라 자신의 비기를 서서히 공개했다.

2010년 처음으로 참가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도마 4위에 오르며 성공적으로 데뷔한 양학선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아에서 적수를 찾지 못한 양학선은 난도 7.4점짜리 '양학선'을 앞세워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시상대를 접령하며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 떠올랐다.

태릉에서 선수들과 동고동락했던 조 감독은 결국 예순이 넘은 나이에 지도자 인생 최고의 순간을 런던에서 맞았다. /연합뉴스

태극전사 경기 일정

◇8일(한국시각)

▲17시15분 태권도 남자 -58kg급 이대훈

▲18시00분 육상 남자 장대높이뛰기 김유석

▲21시00분 레슬링 여자 자유형 48kg급 김형주

▲23시30분 탁구 남자 단체 결승

◇9일(한국시각)

▲03시00분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예선 김수지

▲03시05분 육상 남자 창던지기 예선 정상진

▲20시00분 리듬체조 개인 종합 예선 로테이션 손연재

▲21시00분 레슬링 여자 자유형 55kg급 엄지은